

KSADP

ISSN 2288-4270 (Print)
ISSN 2733-8711 (Online)

발달지원연구

제12권 제2호 (2023년 8월)

KJADP

한국발달지원학회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 12권 제2호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023년 8월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12권 제2호 / 2023. 8.

| | |
|--|----------------|
| 아동 자위행동 관련 변인 탐색..... | 강혜진 · 최지영 / 1 |
|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 정서지능,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 김미영 · 이혜란 / 21 |
| 한국 초등학교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KPAS-ES)의 개발 및 타당화..... | 엄연용 · 송원영 / 45 |
| 신노년의 자기계발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 이윤희 · 신민영 / 67 |
|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 이용과 양육불안의 관계: 상향비교와 인지적 통제유연성의 매개효과 -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 | 이샘 · 김도연 / 83 |
| 주체성-대상성 자기관과 울분과의 관계에서 통제 소재의 매개효과..... | 장희순 / 101 |

한국 발달 지원 학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 정서지능,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김 미 영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석사

이 혜 란†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성인애착 측정 방법론들은 성인애착 유형이 서로 구분되는 별도의 유목들로 구성되기 보다는 차원으로 개념화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에 따라 대인관계에 이르는 경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으로 나누어 작업동맹에 이르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 상담 경력 3년 이하, 석사 재학 이상의 초심상담자 2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이 초심상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애착회피 차원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애착불안 차원은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애착불안과 회피 차원에 따라 작업동맹에 이르는 경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초심상담자가 전문상담자로 성장함에 있어 애착 차원에 따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요소들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해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초심상담자, 작업동맹, 성인애착, 정서지능, 역전이 관리능력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21년도 가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이다

† 교신저자: 이혜란,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부교수, (13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E-mail: janette@gachon.ac.kr.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23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심리적 건강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 변화, 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심리적 지원 활동을 증가시키려는 법·제도 및 정부 정책의 변화, 기업에서 직원의 심리지원프로그램 확대 경향 등의 전망 요인을 바탕으로 상담전공 심리학 연구원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용노동부, 2022). 이와 같이,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상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면서 전문적인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담자의 발달 단계 이론적 관점에서 상담자는 인간적 자질을 향상시키면서, 상담에서 요구하는 상담기술을 습득하는 가운데 전 생애에 걸쳐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초심상담자들이 상담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정경빈, 조성호, 2009). 여러 연구자들이 효과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주체이자, 상담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변인으로 상담자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Corey & Corey, 2014/2016; Skovholt, 2001/2003), 이는 초심상담자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초심상담자의 경우, 내담자의 반응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며 이로 인해 내담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치료적인 관계로 이끄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차영은, 2012). 초심상담자들은 수련의 필수과정으로 내담자를 만나고 있으나, 상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김지연 외, 2009),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상담자 개인의 특성이 내담자와의 관계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수록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상담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한은주, 최한나, 2013; 황인호, 2005). 상담 관계는 작업동맹, 전이-역전이, 그리고 실제 관계로 구성된다. 그중 작업동맹은 여러 상담 이론의 차이를 넘어 다양한 접근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상담에 중요한 요소이며 상담성고를 예언하는 강력한 변인 중 하나로 확인되어왔다(김동민, 양정연, 2012; 김정옥, 이훈진, 이장호, 2005; Fuertes, Gelso, Owen & Cheng, 2013; Uckelstam, Holmqvist, Philips & Falkenström, 2020).

Bordin(1979)은 작업동맹을 ‘의식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유한 목표를 향해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작업동맹의 중요한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1)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합의된 상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goal)들, (2) 상담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task)들에 대한 동의, (3) 과제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유대(bond)를 제안하였다. Bordin(1979)은 작업동맹을 정신역동이론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심리 치료적 접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며, 이후 작업동맹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고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

작업동맹에 관한 연구는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윤희섭, 정현희, 2012; 조화진, 김민정, 2018; 한은주 외, 2013; Mallinkrodt, Porter & Kivlighan, 2005) 그리고 작업동맹과 상담성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나현미, 정남운, 2016; 윤희섭 외, 2012; 임전옥, 2014; Martin, Garske & Davis, 2000)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축적된 연구물들에 관한 메타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은하, 박승민, 2011; 심정미, 2017; 이정숙, 금명

자, 2019; 최한나, 권윤주, 강귀옥, 2015; Martin et al., 2000).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효과를 살펴본 다층 메타연구(Del Re, Flückiger, Horvath & Wampold, 2021)의 결과는 동맹과 성과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영향의 중대성을 지지한다. 또한, 개별 상담자가 상담성과의 예측지표로서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Laska, Gurman & Wampold, 2014) 상담자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조재현, 최한나, 2017; Ahn & Kivlighan, 2022). 메타분석 결과 연구자들은 작업동맹 형성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변인을 크게 외적 특성 및 상태, 내적 특성 및 상태로 범주화하였다. 상담자의 나이, 성별 등의 외적 특성보다 경력, 기법 등의 외적 상태와 정서적 안녕, 애착 등의 내적 특성 그리고 관계 형성 능력과 같은 내적 상태가 작업동맹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이정숙 외, 2019).

상담의 성공은 상담자의 정서적 가용성에 의존하며, 이는 상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애착 관계에서 보살핌을 받았던 과거력과 관련된다(Bowlby, 1988/2014). Bowlby는 안전기지 가설에서 반응적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안정애착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활발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듯 상담자도 안정감, 편안함, 수용적 태도 등을 내담자에게 제공하여 내담자가 치료적 탐색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안전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은 상담자의 애착 경향과 관련이 있다(An, Kivlighan & Hill, 2023; Milkulincer & Shaver, 2007).

애착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로 주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Bowlby, 1958). 애착은 자기, 타인, 자기와 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지도이자 표상모형인 내적작동모

델을 형성하며, 유아기를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새롭게 맺는 관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작용한다(Bowlby, 1988/2014).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는 상담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애착 관련 기대와 행동을 나타내게 되고(문형준, 2007), 상담자의 애착 특성은 내담자와의 상담관계를 안전하게 수립할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된다(Daniel, 2006).

이에 상담자 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상담자의 안정애착이 높은 작업동맹과 관련 있으며, 상담자의 불안정애착이 낮은 작업동맹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Black, Hardy, Turpin과 Parry(2005)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안정애착은 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와의 동맹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불안정애착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애착 유형의 관점에서 살펴본 수련중인 상담자들의 치료 관계 경험 연구(Rizou & Giannouli, 2020)에서 안정애착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안전 기반을 제공하는 능력을 확인하지만, 불안정애착의 상담자는 그들의 협력에 예민하여 작업동맹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상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리, 2016; 윤희섭 외, 2012; 황찬, 2014).

그러나 상담자의 불안정애착이 높은 상담성과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Sauer, Lopez와 Gormley(2003)의 연구에서 치료 초기 상담자의 애착불안이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 정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상처받은 상담자 페러다임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스스로의 내적 상처를 왜곡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통합된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 관계 맺는 능력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본다(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Sauer 등(2003)은 치료 초기에 불안이 높은 상담자들이 내담자들로 하여금 상담 관계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치료에 임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한편, 상담자 애착이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 유의한 관련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Bucci, Seymour-Hyde, Harris & Berry, 2016). 작업동맹 지각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 성인애착패턴의 효과를 연구한 김동민 외(2012)의 연구에서 상담자 성인애착패턴의 두 차원이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상담자의 애착 차원에 따라 내담자의 작업동맹 지각이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양정연(2011)과 권윤주(2019)의 상담자 애착과 내담자 작업동맹의 관계 연구에서 상담자의 애착회피는 내담자의 작업동맹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상담자 애착불안은 내담자의 작업동맹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권윤주(2019)는 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친밀감이나 의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특히 초기 작업동맹에서는 상담자가 목표 합의, 과제 동의 그리고 정서적 유대에 주력함으로써 애착회피의 양상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상담자가 관계에 대한 몰입과 상대방에게 버림받는 것,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애착불안의 특징이 상담 장면에서 낮은 상담성이나 내담자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내담자와 목표 합의, 과제 동의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어렵게 하고 내담자는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담자 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

이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초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성인기까지 내재화되어 대인관계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과 상담관계의 한 요소이자 상담성가를 예측하는 공통적이고 범이론적 요인인 작업동맹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담자 애착 특성과 작업동맹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에 대해, 문형춘(2007)은 상담자의 애착 특성과 작업동맹 사이의 관계성이 훨씬 복잡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였으며,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 이 관계의 더욱 분화되고 구체적인 특성을 규명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동민(2016)은 상담자 애착과 작업동맹간 유의한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일관성있는 결과가 보고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담자의 일반적 애착보다 작업동맹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을 제안하였다.

애착 유형의 개념은 관련 측정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성인애착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과 자기보고식 도구(self-report instrument)들로 이루어진 두 가닥의 영향력 있는 측정이 평행을 이루며 발전해왔다(Daniel, 2006). 성인애착 측정을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는 애착 범주(attachment category)를 얻는 검사와 애착 차원(attachment dimension)을 얻는 검사로 나눌 수 있다. 수용가능하고 표준이 되는 절단점수가 정의되면, 차원 척도로부터 범주가 파생될 수 있다(Ravitz, Maunder, Hunter, Sthankiya & Lancee, 2010).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친밀관계경험척도의 경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개의 차원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두 차원의

높고 낮은 점수의 조합에 따라 네 가지 애착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불안과 회피 차원 모두 낮은 사람은 안정애착에, 불안과 회피 차원 모두 높은 사람은 두려움 유형에 해당한다.

애착의 차원적 측정은 범주적 측정에 비해 개인간의 미묘한(subtle)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 연구에서 유용할 수 있다(Ravitz et al., 2010). 측정의 차원적 구조는 한 가지 특정한 유형 내에서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더 넓은 범위의 개인적 차이들의 함축적 의미를 연구할 수 있다. Fraley와 Waller(1998)는 분류측정 조사법(taxometric investigative methods)을 사용한 연구에서 성인애착 유형이 서로 구분되는 분류 유목들로 구성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인애착 안전성에 대한 차원적(dimensional) 개념화 및 평가를 강력하게 옹호했다(Lopez & Snyder, 2003/2008). 자기보고식 검사로 측정되는 애착 유형은 범주적 방식보다는 차원적 방식에서 더 적절하게 개념화되고 있다는 점차적인 합의가 있다(Fraley & Waller, 1998. Daniel, 2010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으로 구분하여 작업동맹과의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애착은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각적인 입력을 구성한 후 그에 적합한 행동체계를 이끌어내는 인지-정서적 구조이다(Bretherton, 1985). 내적작동모델에는 반드시 정서가 연결되어있는데, 이는 애착 관련 사건에는 언제나 정서가 동반되기 때문이다(Marrone, 2014/2022). Bowlby(1979)는 애착과 관련된 정서에 대해서 애착 관계가 형성, 유지, 붕괴 그리고 재개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강렬한 정서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특히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유기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여(Bowlby,

1988/2014)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서는 애착과 애착 유대에 있어 중심영역이라 할 수 있다(Hazan, Gur-Yaish & Campa, 2004).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으로(Salovey & Mayer, 1990),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성인애착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애착회피와 정서지능이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민지, 2017; 배기원, 2022; 이태경, 2021; 이현경, 2009). 하지만 애착불안의 경우 정서지능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배기원, 2022),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이현경, 2009),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민지, 2017; 이태경, 2021) 등이 있다. 성인애착과 사회적 결과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정서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정서주의는 애착불안 차원보다 애착회피 차원과 관련이 있으며, 애착회피 차원은 정서주의를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이른다(신지옥, 2006; Mallinckrodt & Wei, 2005; Wei, Vogel, Ku & Zakalik, 2005). 즉, 높은 애착회피 수준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부주의하게 하고,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며, 자신을 사회적 지지로부터 철회하게 만들어 대인관계 문제를 초래한다.

정서지능은 상담자가 자신에 대해 효능감을 느끼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어, '치료적 도구로서의 상담자'라는 측면에서 상담자에게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임진옥, 2014). 특히 상담에서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서지능은 상담자가 대인관계 측면에서 유능감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이것이 상담관계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맺는 치료적 동맹의 주요한 측면은 정서적 연결의 질이며(Magnavita, 2006), 상담자가 상담에 정서적으로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내담자의 생각과 정서에 조율하는 것은 긍정적인 치료적 변화를 촉진한다(Greenberg & Pascual-Leone, 2006).

상담자의 정서지능과 작업동맹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연구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보고되었다(임전옥, 2014; 최신영, 2014). 다만 정서지능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역전이 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나, 상담자의 정서지능은 관계 기술을 통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임전옥, 2014). 또한 작업동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특징과 기법을 개관한 연구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연결의 수준을 강화하는 상담 기법의 적용은 작업동맹의 발달과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ckerman & Hilsenroth, 2003). 이에 상담 관계 기술 중 하나인 역전이 관리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이 작업동맹에 이르는 경로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전이 관리능력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동시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면서 자신과 내담자 간에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고 불안을 관리하는 능력이다(조화진 외, 2018). 이런 의미에서 상담자가 역전이 반응을 감지하고 조절하는 데 정서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애착의 상담자는 부정적 역전이를 행동화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으나, 불안정 애착의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어 역전이 행동을 자제하는 것에 어

려움을 보인다(An et al., 2023; Mohr, Gelso & Hill, 2005). 높은 정서지능이 역전이 행동을 낮춘다는 결과와 함께(임전옥, 2014), 정서인식명확성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상담자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자신의 통찰을 돕고,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역전이 감정이 감소하도록 이끌고, 불안을 조절하여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안혜정, 2019; 양효진, 2018; 장동환, 2017; 장세미, 1999; 장유나, 2015; 조경희, 2014; 조민경, 2020).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은 상담자 자신의 욕구와 갈등의 결과로 내담자에게 보이는 필연적인 반응으로(Gelso & Carter, 1985),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Peabody & Gelso, 1982), 상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역전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치료에 방해가 되거나 작업동맹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황인호, 2005; Barreto & Matos, 2017). 따라서 상담자는 역전이 반응이 상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자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갖는 신뢰를 증진시키고, 작업동맹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는 보고가 있다(오충광, 정남운, 2007; Hayes & Gelso, 2001). 그 밖에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김예지, 2019; 김택준, 2014; 윤희섭 외, 2012; 조화진 외, 2018; 황찬, 2014; Hayes, Gelso, Goldberg & Kivlighan, 2018).

선행연구들을 통해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정서지능, 역전이 관리능력, 그리고 작업동맹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으나 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연구결과가 혼재하고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살펴본 연

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초심상담자는 전문상담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내담자와 만나 상담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자의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이 작업동맹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업동맹은 단일요인이 아닌 상담자의 개인 내적 특성과 전문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므로(Ackerman et al., 2003), 개인 내적 특성인 정서지능과 함께 상담자와 내담자 역동을 파악할 수 있는 관계 기술인 역전이 관리능력의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차원 중 애착불안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차원 중 애착회피와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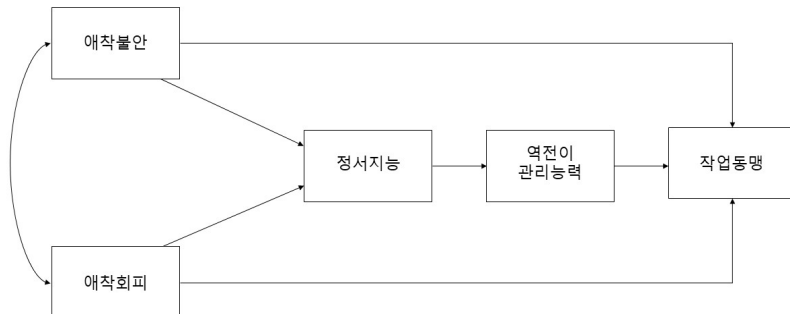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상담경력 3년 이하, 석사 재학 이상의 초심상담자 2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설문문에 제시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동의서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초심상담자들의 나이는 만 24세에서 59세(평균=32.68, 표준편차=6.25) 범위였으며, 남자는 36명(16.7%), 여자는 179명(83.3%)이었다. 학력은 석사 졸업 126명(58.6%), 석사 과정 및 수료 80명(37.2%), 박사 과정 및 수료 7명(3.3%), 박사 졸업 2명(0.9%) 순이었다. 상담 관련 자격은 2급(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이 231명(72.0%), 3급(청소년 상담사)이 52명(16.2%), 기타 자격 및 상담 관련 학회 수련생이 38명(11.8%)이었다. 기타 자격으로는 민간 상담 자격증과 직업 상담사 등이 있다. 초심상담자의 상담 경험 회수는 2 사례에서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변인 | 구분 | 사례 수 | 백분율 |
|---------------|--------------------|------|------|
| 성별 | 남 | 36 | 16.7 |
| | 여 | 179 | 83.3 |
| 연령 | 20대 | 82 | 38.1 |
| | 30대 | 107 | 49.8 |
| | 40대 | 22 | 10.2 |
| | 50대 | 4 | 1.9 |
| 학력 | 박사 | 2 | 0.9 |
| | 박사 과정 및 수료 | 7 | 3.3 |
| | 석사 | 126 | 58.6 |
| | 석사 과정 및 수료 | 80 | 37.2 |
| 상답경력 | 50 사례 미만 | 197 | 91.6 |
| | 50 사례 이상 100 사례 미만 | 10 | 4.7 |
| | 100 사례 이상 | 8 | 3.7 |
| 자격증 (중복응답) | 2급 | 231 | 72.0 |
| | 3급 | 52 | 16.2 |
| | 기타 및 상담 관련 학회 수련생 | 38 | 11.8 |

주. N=215

200 사례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상담경력 은 평균 17개월(표준편차=8.82)이었다.

설문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전체 236명이 응답하였으나 동일인의 중복참여, 상담경력과 소지한 자격증이 초심상담자의 정의에 맞지 않은 경우(21부)를 제외하고 총 215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온라인 설문 참여자 모집을 위한 안내문에는 연구 목적, 소요 시간 그리고 참여 링크 등이 포함되었으며, 안내문은 상담 관련 학회 홍보 게시판과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044396-202009-HR-173-04).

측정도구

성인에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로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이는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성인애착 유형 검사자인 친밀 관계 경험-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evised: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이다. 척도는 총 36 문항으로, 각 하위척도는 애착불안 18문항, 애착회피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기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애착불안의 예시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걱정한다.’가 있으며, 의존과 자기 노출에 대한 불편함을 특징으로 하는 애착회피의 예시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가 있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

서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애착불안의 경우 .89, 애착회피의 경우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의 경우 .90, 애착회피의 경우 .82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Wong과 Law(2002)가 개발하고, 임전옥(201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정서지능 척도(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각 하위척도는 자기정서인식 4문항, 타인정서인식 4문항, 정서조절 4문항, 정서활용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정서인식의 예시문항에는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느끼는 감정의 원인을 잘 안다.', 타인정서인식의 예시문항에는 '나는 항상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그 친구의 정서가 어떤지를 잘 파악한다.', 정서조절의 예시문항에는 '나는 내 기분을 조절할 수 있고 곤란한 문제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서활용의 예시문항에는 '나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 하는 사람이다.'가 있다. 임전옥(2014)의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역전이 관리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Van Wagoner, Gelso, Hayes와 Diemer(1991)가 개발하고 장세미(1999)가 번안한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CF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50문항으로, 각 하위척도는 자기통찰 11문항,

자기통합 11문항, 공감능력 11문항, 불안관리 8문항, 개념화 기술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본 척도에서 제시되는 높은 점수는 뛰어난 역전이 관리능력을 나타낸다.

자기통찰의 예시문항에는 '나는 내담자로 인해서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자주 자각한다.', 자기통합의 예시문항에는 '나는 대체로 내담자의 갈등에 지나치게 동일시되지 않도록 자제한다.', 공감능력의 예시문항에는 '나는 대체로 내담자에게 정서적으로 조율하여 맞춘다.', 불안관리의 예시문항에는 '나는 상담하는 동안 심한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념화 기술의 예시문항에는 '나는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역동 혹은 문제를 명확하게 개념화할 수 있다.'가 있다. 장세미(1999)의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작업동맹 척도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인식한 작업동맹을 측정하기 위해 Horvath와 Greenberg(1989)의 작업동맹질문지를 강혜영(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각 하위척도는 목표 합의 12문항, 과제 동의 12문항, 정서적 유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상담협력관계가 높아지고 잘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 합의 예시문항에는 '내담자와 나는 일치된 상담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과제 동의의 예시문항에는 '내담자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의견이 같다.' 그리고 정서적 유대의 예시문항에는 '나는 진심으로 내담자의 행복에 관

심을 가지고 있다.’가 있다. 강혜영(1995)의 연구에서 상담자 보고용 작업동맹질문지의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 연구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SS 25.0을 사용하였다. 또한 성인애착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전체효과, 직접효과 그리고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5.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관찰변수로 이루어진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방정식 모형 기법이다(Kline, 2005/2010).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증분 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절대 적합지수인 χ^2 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산출하였다. 성인애착이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을 통하여 작업동맹에 미치

는 매개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의 기술 통계치는 표 2 하단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는 -.44~.55, 첨도는 -.52~1.24로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얻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표 2 상단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애착의 하위 요인인 애착불안은 작업동맹($r=-.56, p < .01$), 정서지능($r=-.31, p < .01$), 역전이 관리능력($r=-.25, p < .01$)과 각각 부적상관이 유의하였다. 애착회피는 작업동맹($r=-.47, p < .01$), 정서지능($r=-.35, p < .01$), 역전이 관리능력($r=-.24, p < .01$)과 각각 부적상관이 유의하였다. 정서지능은 역전이 관리능력($r=.74, p < .01$), 작업동맹($r=.49, p < .01$)과 정적상관이 유의하였고, 역전이 관리능력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 | 1 | 2 | 3 | 4 | 5 |
|-------------|--------|--------|-------|-------|------|
| 1. 애착불안 | - | | | | |
| 2. 애착회피 | .51** | - | | | |
| 3. 정서지능 | -.31** | -.35** | - | | |
| 4. 역전이 관리능력 | -.25** | -.24** | .74** | - | |
| 5. 작업동맹 | -.56** | -.47** | .49** | .59** | - |
| M | 3.70 | 3.69 | 3.57 | 3.48 | 4.63 |
| SD | 1.06 | .82 | .55 | .45 | .65 |
| 왜도 | -.41 | -.33 | -.44 | .21 | .55 |
| 첨도 | -.18 | .71 | 1.24 | .14 | -.52 |

주. N=215, ** $p < .01$

표 3. 경로모형의 적합도

| | χ^2 | df | TLI | NFI | CFI | RMSEA (90% 신뢰수준) |
|------|----------|----|-------|-------|-------|---------------------|
| 경로모형 | 1.45 | 3 | 1.01 | 1.00 | 1.00 | .000 (.000-.087) |
| 수용기준 | | | > .90 | > .90 | > .90 | < .10 |

과 작업동맹은 정적상관($r=.59, p < .01$)이 유의하였다.

경로모형 검증

성인애착, 정서지능, 역전이 관리능력 그리고 작업동맹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하였던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들 모두가 적절한 수준에 해당하여 적합한 모형임을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경로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 추정된 경로를 살펴보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서 작업동맹

으로의 경로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36, \beta = -.17, p < .001, p < .01$),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서 정서지능으로의 경로 또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7, \beta = -.26, p < .05, p < .001$). 정서지능에서 역전이 관리능력으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74, p < .001$), 역전이 관리능력에서 작업동맹으로의 경로 또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46,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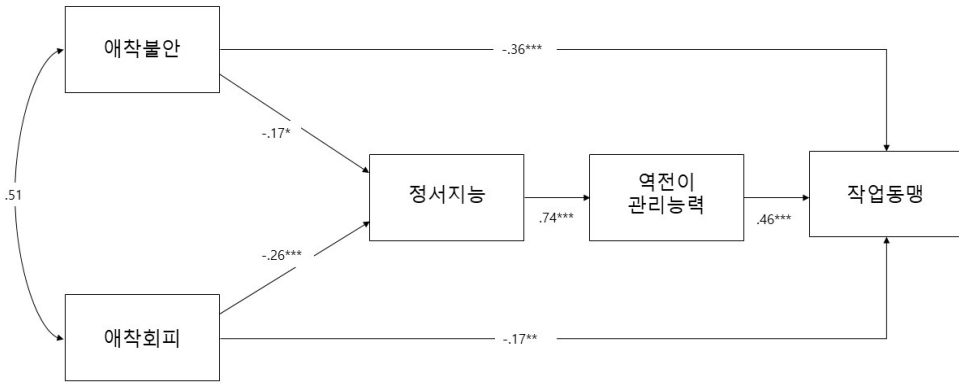
변인 간 (직)간접효과 분석

변인들 사이에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 직접효과는 앞서 경로모형

표 4. 변인 간 추정된 경로계수

| 경로 | 비표준화계수 | 표준오차 | 표준화계수 | t |
|-----------------|--------|------|-------|----------|
| 애착불안 → 정서지능 | -.09 | .04 | -.17 | -2.31* |
| 애착불안 → 작업동맹 | -.22 | .03 | -.36 | -6.75*** |
| 애착회피 → 정서지능 | -.18 | .05 | -.26 | -3.55*** |
| 애착회피 → 작업동맹 | -.14 | .04 | -.17 | -3.19** |
| 정서지능 → 역전이 관리능력 | .60 | .04 | .74 | 15.96*** |
| 역전이 관리능력 → 작업동맹 | .67 | .07 | .46 | 9.73*** |

주. N=215, * $p < .05$, ** $p < .01$, *** $p < .001$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경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김중(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유의하다.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애착불안이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역전이 관리능력에 이르는 간접경로($\beta = -.13$, $CI = -.31-.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애착회피가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역전이 관리능력에 이르는 간접경로($\beta = -.19$, $CI = -.34-.02$)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정서지능이 애착회피와 역전이 관리능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서지능이 역전이 관리능력을 매개로 하여 작업동맹에 이르는 간접경로($\beta = .34$, $CI = .26-.42$)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애착불안이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을 매개로 하여 작업동맹에 이르는 경로($\beta = -.06$, $CI = -.14-.02$)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애착회피는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을 매개로 하여 작

표 5. 변인 간 간접효과 분석

| 예언변인 | 매개변인 | 준거변인 | 전체효과 | 간접효과 | 부트스트랩 | |
|------|----------------------|------------|---------|-------|-------|------|
| | | | | | 하한계 | 상한계 |
| 애착불안 | → 정서지능 | → 역전이 관리능력 | -.13 | -.13 | -.31 | .05 |
| 애착불안 | → 정서지능 → 역전이 관리능력 | → 작업동맹 | -.42*** | -.06 | -.14 | .02 |
| 애착회피 | → 정서지능 | → 역전이 관리능력 | -.19* | -.19* | -.34 | -.02 |
| 애착회피 | → 정서지능 → 역전이 관리능력 | → 작업동맹 | -.26*** | -.09* | -.17 | -.01 |
| 정서지능 | → 역전이 관리능력 | → 작업동맹 | .34* | .34* | .26 | .42 |

주. N=215, * $p < .05$, ** $p < .01$, *** $p < .001$

업동맹에 이르는 경로($\beta=-.09$, $CI=-.17-.01$)가 유의하여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애착회피와 작업동맹을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초심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정서지능, 역전이 관리능력, 작업동맹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상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김기민, 2016; 김두리, 2016; 김봉욱, 2015; 윤희섭 외, 2012; 조화진 외, 2018; 황찬, 2014; Rizou et al., 2020)의 결과를 지지한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정서지능과 부적 상관관계(김민지, 2017; 이현경, 2009, Walker, Double, Kunst, Zhang & MacCann, 2022), 성인애착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정서표현-과의 부적 상관관계(김두리, 2016; 김봉욱, 2015; 김찬양, 최한나, 2018; 류수정, 2010; 이경례, 2016)를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역전이 관리능력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국혜진, 2015; 양효진, 2018; 윤희섭 외, 2012; 이윤희, 2017; 장동환, 2017; 조화진 외, 2018; 황찬, 2014).

초심상담자의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 작업동맹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나, 정서인식명확성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정적인 상관관계(안혜정, 2019; 양효진, 2018; 장동환, 2017; 장유나, 2015; 조민경, 2020), 정서지능과 역전이 행동의 부적인 상관관계(임전옥, 2014; 조경희, 2014)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정서지능이 작업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임전옥, 2021; 최신영, 2014)의 결과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역전이 관리능력이 상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택준, 신희천, 2016; 윤희섭 외, 2012; 조화진 외, 2018; 황찬, 2014).

둘째,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 차원 중 애착회피와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애착회피는 정서지능, 역전이 관리능력 그리고 작업동맹에 순차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애착회피와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애착회피와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초심상담자의 애착회피 차원이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을 매개로 하여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 차원 중 애착불안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애착불안의 경우 각 변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애착불안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애착불안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경로에서 성인애착 차원에 따라 정서지능의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학생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애착불안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가 없었으나, 애착회피 차원의 경우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는 결과(김봉옥, 2015)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애착의 두 차원은 서로 다른 경로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이정희, 심혜숙, 2007). 애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이르는 경로분석에서 애착불안은 정서조절을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애착회피는 정서주의와 정서조절을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지옥, 2006). 즉, 정서주의는 애착불안 차원보다 애착회피 차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주의는 내적·외적 자극으로부터 유발된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 감정의 자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정서를 스스로 알고 의식하는 과정으로 정보처리 과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정서인식(Mayer & Salovey, 1995)은 정서주의와 정서명료화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것과 연결되어 대인관계에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낮은 정서주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신지옥, 2006).

한편, 애착차원에 따른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불안 차원이 높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가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과잉 반응하는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경우 타인의 불가용성으로 인한 좌절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으로부터의 거리를 극대화하는 비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Wei et al., 2005).

정서지능과 성인기의 애착을 메타분석한 연구(Walker et al., 2022)에 따르면 애착회피의 경우 자신의 감정에 정서적 거리를 두어 자신과 타인의

정서인식이 어렵고(Stevens, 2014),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관심이 적으며 거리를 유지하고(Santascy, Burke & Dovidio, 2016), 감정을 차단하고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는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이러한 특성은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초심상담자의 자기와 타인의 정서인식, 정서조절 및 활용으로 이루어진 정서지능을 낮추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회피애착형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관계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에서 권경인과 양정연(2015)은 이들의 중심현상이 경계와 정서적 거리 유지임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서 회피애착형으로 분류된 상담자들은 정서에 있어 상담자 자신의 내부나 외부에서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강렬한 감정을 자각해도 그 감정을 개방하지 않고 보유하고 이야기하였으며, 특징적으로 역전이 감정을 거의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애착회피의 친밀감과 의존성에 대한 두려움은 초심상담자가 내담자와 거리를 유지하며 상담자 자신과 내담자의 정서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정서인식이 가능하더라도 정서를 억압하는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낮은 정서지능은 역전이 감정을 느끼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역전이 감정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는 역전이 관리능력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인들 중 상담자가 역전이 감정을 자각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통찰을 낮추고, 역전이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Robbins와 Jolkovski(1987)는 상담자들이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분명하게 인식할수록 역전이 행동을 적게 한다고 하였다.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은

상담자들은 자신의 내적인 반응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역전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고, 상담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와의 역동을 개념화하여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데 역전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역전이 감정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러한 역전이 관리능력을 낮추게 되어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 맺는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하도록 이끌 수 있다.

한편, 애착불안이 역전이 관리능력 및 작업동맹으로 가는 경로에서 정서지능의 역할은 복잡한 것으로 여겨진다. 애착불안 차원은 거부나 유기에 대한 불안으로 자신의 감정에 접촉하고 인식하기 어렵고, 타인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과잉 반응하는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Wei et al., 2005). 애착불안의 개인들은 증가된 정서적 자각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감정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준다(Stevens, 2014). 애착 차원에 따라 개인들이 유입되는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데(Fraley & Shaver, 2008), 매우 불안한 사람들은 타인의 표정에서의 변화를 강렬하게 알아차리지만 그 표정 아래에 있는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더 많은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Fraley, Niedenthal, Marks, Brumbaugh & Vicary, 2006). 이러한 애착불안의 특성은 애착회피의 특성과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자기정서인식을 낮추고 부정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 애착회피 차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착불안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대인관계에 있어 타인을 수용하는 온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성향이 있으며(이현경, 2009), 애착불안 차원이 높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나 경험에 더 민감하게

공감하고 상담에서 긍정적인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다(이수현 외, 2006). 애착불안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함께(배기원, 2022), 불안애착이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 중 자기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반면, 타인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정현, 박현옥, 2009). 이러한 애착불안의 특성이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따라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가 없기도 하여 전체적인 영향력이 감소했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애착회피 차원의 경우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애착불안 차원의 경우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 차원에 따라 내담자와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 정서지능, 역전이 관리능력 그리고 작업동맹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이 서로 다른 경로로 작업동맹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에 인생 초기에 형성된 상담자의 성인애착 차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자 수련에서 자신의 애착 차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애착회피와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성인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자기정서인식을 측정하는 정서인식명확성 또는 역전이 관리능

력이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가운데(김두리, 2016; 김봉욱, 2015; 윤희섭 외, 2012; 황찬, 2014), 내담자의 정서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이에 반응해야하는 상담자의 정서인식 측면에서 타인정서인식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매우 드물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심상담자가 작업동맹을 높이기 위해 정서지능과 상담 관계 기술을 함께 향상시키는 접근이 수련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마음챙김이 향상될수록 불안정 애착 특성의 행동들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김은진, 2017; 석정민, 손정락, 2013; Goodall, 2012)와 함께 애착회피가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마음챙김이 완전매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찬양 외, 2018). 또한,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문제 극복을 위한 자각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살펴본 연구(안세지, 박선우, 박미영, 황선민, Otgoo, 천성문, 2019)에서 상담자의 자기성찰, 무조건적 자기수용,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하여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 차원이 높은 초심상담자는 교육분석, 마음챙김, 집단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수련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애착회피 차원의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는 비활성화 전략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 정서적 교류를 막고 과소개입의 역전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애착 특성을 이해하고 상담회기를 돌아보며 수련감독을 통하여 역전이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초심상담자의 애착회피 차원이 작업동맹에 이르는 경로에서 정서

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순차적인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애착불안 차원의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뿐 아니라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차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을 매개변인으로 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상담자의 정서인식은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정서를 지각하고 이에 반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인정서인식 또한 중요하다. 논의에서 애착차원에 따라 경로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 타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예상하였으나, 이를 다룬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상담자의 타인정서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후속연구들을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정서지능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두 변인의 개념은 다르지만 하위 척도의 문항들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변인에 대한 척도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탐색과 함께 정서지능의 개념이 넓어 초점화된 특성으로 좁혀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높은 것은 오히려 변수들 사이의 예측력이 낮음을 의미하므로(강현철, 2013) 연구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한국자료 분석학회* 15(2), 653-668.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2). 2023 한국직업 전망. 충청북도: 한국고용정보원.

- 국혜진 (2015). 상담자의 성인애착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경인, 양정연 (2015). 회피애착형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관계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 연구, 16(3), 25-49.
- 권윤주 (2019). 상담자 애착과 발달수준이 내담자 작업동맹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민 (2016). 상담자와 내담자의 성인애착과 작업동맹이 상담회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민(2016). 상담자 성인애착과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간의 관계. 교육문화연구, 22(6), 59-85.
- 김동민, 양정연 (2012). 작업동맹 지각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 성인애착패턴의 효과: 행위자-파트너 상호의존 모델(APIM) 분석. 상담학 연구, 13(6), 2523-2542.
- 김두리 (2016). 초기 작업동맹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성인애착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호작용효과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지 (2017). 특수교사의 성인애착이 교사-학생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정서지능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욱 (2015). 학생상담자의 불안정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관계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예지 (2019).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치료적 동맹의 관계에서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 (2017). 대학생 불안정애착과 정서,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1), 1-27.
- 김은하, 박승민 (2011). 작업동맹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25.
- 김정욱, 이훈진, 이장호 (2005). 내담자 방어성숙도, 상담자 개입 및 상담성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91-110.
- 김정현, 박현옥 (2009).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의 정서 지능과 애착 유형의 관계. 시각장애연구, 25(4), 21-33.
- 김지연, 한나리, 이동귀 (2009). 초심상담자와 상담 전문가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 연구, 10(2), 769-792.
- 김찬양, 최한나 (2018).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 조절의 관계: 마음챙김과 정신화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7(1), 47-74.
- 김택준 (2014).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택준, 신희천 (2016).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291-309.
- 나현미, 정남운 (2016). 상담자의 성인애착, 상담자 발달수준 및 공감과 상담초기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339-369.
- 류수정 (2010). 애착에 따른 정서경험, 정서표현, 정서조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형춘 (2007). 성인애착 특성과 상담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09-634.
- 배기원 (2022). 대학생 애착유형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 가족탄력성과 정서지능의 매개 효과.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석정민, 손정락 (2013). 마음챙김과 수용 중심 프로그램이 몰두형 애착 대학生的 애착불안과 사회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627-642.
- 신지옥 (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정미 (2017).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내담자 변인에 대한 국내 연구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안세지, 박선우, 박미영, 황선민, Otagoo, 천성문 (2019). 초보상담자의 자기문제 극복을 위한 자각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교육치료연구, 11(3), 295-319.
- 안혜정 (2019). 상담자의 경력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정연 (2011). 상담자 내담자 애착 유형 조합에 따른 작업동맹과 역전이 행동.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효진 (2018).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충광, 정남운 (2007). 정서표현갈등과 상담자 지각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1), 115-136.
- 윤희섭, 정현희 (2012). 내담자의 애착과 전이애착, 상담자의 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과 상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3(5), 2463-2482.
- 이경례 (2016). 영아교사의 성인애착, 정서조절능력, 교사효능감, 교사행동의 질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03-317.
- 이윤희 (2017). 상담자의 성인애착유형과 지혜수준에 따른 역전이 관리능력의 차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금명자 (2019). 상담 작업동맹의 이론적 이해 및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345-371.
- 이정희, 심혜숙 (2007).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변량 구조분석. 상담학 연구, 8(3), 899-915.
- 이태경 (202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수행 불안의 관계에서 자아강도와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애착과 사회관계성향과의 관계: 정서지능을 매개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전옥 (2014). 상담자의 정서지능과 상담관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전옥 (2021). 상담자, 내담자의 정서지능이 작업동맹을 매개로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 인간이해, 42(1), 71-100.
- 장동환 (2017). 상담자의 불안정 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유나 (2015). 상담자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빈, 조성호 (2009). 초보상담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인간이해*, 30(2), 45-60.
- 조경희 (2014). 상담자의 경력수준에 따른 정서인식명확성과 역전이 행동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경 (2020). 상담자의 자기분화와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현, 최한나 (2017). 상담자 5요인 성격특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에서 상담자 발달수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293-310.
- 조화진, 김민정 (2018). 상담자 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 역전이 관리능력과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9(1), 41-64.
- 차영은 (2012). 초보상담자 어려움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신영 (2014). 초보상담자의 어려움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한나, 권윤주, 강귀옥 (2015).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1990-2014). *상담학 연구*, 16(3), 85-99.
- 한은주, 최한나 (2013). 역전이 활용능력과 상담만족도의 관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이해*, 34(1), 75-91.
- 황옥경 (2002). 내담자의 애착유형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작업동맹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생활연구*, 7, 115-136.
- 황인호 (2005).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47-563.
- 황찬 (2014). 청소년 상담자의 애착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역전이 관리능력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kerman, S. J. & Hilsenroth, M. J. (2003). A review of therapist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positively impacting the therapeutic allia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2003), 1-33.
- An, M., Kivlighan Jr, D. M. & Hill, C. E. (2023). Working alliance after transferring from one therapist to another in a training clinic: Influence of therapist attachment sty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70(1), 67-80.
- Ahn, L. H. & Kivlighan Jr, D. M. (2022). Working alliance, therapist expressive skills, and client outcome in psychodynamic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9(1), 74-84.
- Barreto, J. F. & Matos, P. M. (2017). Balancing clinical risk with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protects alliance. *Research in Psychotherapy: Psychopathology, Process, and Outcome*, 20(3), 179-186.
- Black, S., Hardy, G., Turpin, G. & Parry, G. (2005).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s and therapeutic orientation of therapis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reported general alliance quality and problems in therapy.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8, 363-377.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3), 252-260.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Bowlby, J. (2014). 존 불비의 안전기지: 애착이론의 치료적 적용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김수임, 강예리와 강민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8에 출판).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35.
- Bucci, S., Seymour-Hyde, A., Harris, A. & Berry, K. (2016). Client and therapist attachment styles and working alliance.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3*, 155-165.
- Corey, M. S. & Corey, G. (2016). 좋은 상담자 되기 [Becoming a helper(7th Edition)]. (이지연과 김아름 역).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원전은 2014에 출판).
- Daniel, S. I. (2006). Adult attachment patterns and individual psychotherapy: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8), 968-984.
- Del Re, A. C., Flückiger, C., Horvath, A. O. & Wampold, B. E. (2021). Examining therapist effects in the alliance - outcome relationship: A multilevel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9*(5), 371 - 378.
- Fraley, R. C., Niedenthal, P. M., Mars, M., Brumbaugh, C. & Vicary, A. (2006). Adult attachment and the Perception of Emotional Expressions: Probing the Hyperactivating Strategies Underlying Anxious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74*(4), 1163 - 1190.
- Fraley, R. C. & Shaver, P. R. (2008), Attachment Theory and Its Place in Contemporary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In O. John & R. W. Robin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518-541). New York: Guilford Press.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Fuertes, J. N., Gelso, C. J., Owen, J. J. & Cheng, D. (2013). Real relationship, working alliance, transference/countertransference and outcome in time-limited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6*(3-4), 294-312.
- Gelso, C. J. & Carter, J. A. (1985). The relationship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mponents, consequences, and theoretical antece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2), 155-243.
- Goodall, K., Trejnowska, A. & Darling, 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al mindfulness, attachment security and emotion

- 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5), 622-626.
- Greenberg, L. S. & Pascual-Leone, A. (2006). Emotion in psychotherapy: A practice-friendly research review.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5), 611-630.
- Hayes, J. A. & Gelso, C. J. (2001). Clinical implications of research on countertransference: Science informing practice. *In S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 1041-1051.
- Hayes, J. A., Gelso, C. J., Goldberg, S. & Kivlighan, D. M. (2018).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nd Effective Psychotherapy: Meta-Analytic Findings. *Psychotherapy*, 53(4), 496-507.
- Hazan, C., Gur-Yaish, N. & Campa, M. (2004). What does it mean to be attached? In W. S. Rholes & J. A. Simpson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55-85).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ition]. (이현숙, 김수진과 전수현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5에 출판).
- Laska, K. M., Gurman, A. S. & Wampold, B. E. (2014). Expanding the lens of evidence-based practice in psychotherapy: A common factors perspective. *Psychotherapy*, 51(4), 467-481.
- Lopez, S. J. & Snyder, C. R. (2008). 긍정심리평가 모델과 측정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이희경, 이영호, 조성호와 남중호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3에 출판).
- Magnavita, J. J. (2006). Emotion in short-term psychotherapy: An introduc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5), 517-522.
- Mallinckrodt, B., Porter, M. J. & Kivlighan, D. M. (2005). Client attachment to therapist, depth of in session exploration, and object relations in brief psychotherap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2(1), 85-100.
- Mallinckrodt, B. & Wei, M. (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58-367.
- Marrone, M. (2022). 애착기반 상담 [Attachment and Interaction from Bowlby to Current Clinical Theory and Practice, 2nd Edition]. (이민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14에 출판).
- Martin, D. J., Garske, J. P. & Davis, M. K. (2000). Relation of the therapeutic alliance with outcome and other variabl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In Session*, 61, 198-208.
- Mayer, J. D. & Salovey, P. (1995).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onstruction and regulation of feeling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4, 197-208.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Mohr, J. J., Gelso, C. J., & Hill, C. E. (2005). Client and counselor trainee attachment as predictors of session evaluation and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in the first counseling sess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298-309.
- Peabody, S. A. & Gelso, C. J. (1982). Countertransference and empathy: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wo divergent concep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3), 240-245.
- Ravitz, P., Maunder, R., Hunter, J., Sthankiya, B. & Lancee, W. (2010). Adult attachment measures: A 25-year review.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9, 419-432.
- Rizou, E. & Giannouli, V. (2020). An exploration of the experience of trainee integrative psychotherapists on therapeutic alliance in the light of their attachment style. *Health Psychology Research*, 8, 153-166.
- Robbins, S. B. & Jolkovski, M. P. (1987). Managing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An interactional model using awareness of feeling and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76-282.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ntascioy, N., Burke, S. E. & Dovidio, J. F. (2016). Avoidant attachment style predicts less positive evaluations of warm (but not cold) social group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1(1), 19-36.
- Sauer, E. M., Lopez, F. C. & Gormley, B. (2003). Respective contributions of therapist and client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early working alliance: A preliminary growth modeling study. *Psychotherapy Research*, 13, 371-382.
- Skovholt, T. M. (2003).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Counselors, Therapist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유성경, 유정이, 이윤주와 김선경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1).
- Stevens, F. L. (2014). Affect Regulation Styles in Avoidant and Anxious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12(3), 123-130.
- Uckelstam, C. J., Holmqvist, R., Philips, B. & Falkenström, F. (2020). A relational perspective on the associ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treatment outcome. *Psychotherapy Research*, 30(1), 13-22.
- Van Wagoner, S. I.,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28, 411-421.
- Walker, S. A., Double, K. S., Kunst, H., Zhang, M. & MacCann, C. (2022). Emotional intelligence and attachment in adulthood: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4, 111174.
- Wei, M., Vogel, D. L., Ku, T.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Wong, C. & Law, K. S.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
243-274.

1차 원고접수 : 2023. 06. 10.
수정원고접수 : 2023. 08. 17.
최종게재결정 : 2023. 08. 30.

The Path Analysis of the Effects of Novice Counselor's Adult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on Working Alliance

Mee-Young Kim

Hye-Ran Lee

Gachon University of Professional Therapy
Master

Gachon University of Professional Therapy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vice counselor's adult attachment and working alliance. Adult attachment measurement methodologies take the view that it is more appropriate to conceptualize adult attachment types as dimensions rather than being composed of separate categories, and studies which suggest that the path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ay vary depending on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dimensions are being conducted. Accordingly, adult attachment was divided into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dimensions, and the path that each dimension reaches the working alliance was examined. 215 novice counselors participated in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had negative effect on working alliance. Seco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had dual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working alliance, but they did not have dual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working alliance. These results mean that the pathways that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affect working alliance are different, which suggests that factors to be dealt with may vary depending on the attachment dimensions in the growth of novice counselors as professional counselor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Novice Counselor, Working Alliance, Adult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